

5.18 40주년 기념음악회 <오월, 부활하다> 참여할

518명의 오월오케스트라, 오월합창단 모집

- 5.16(토), 서울광장에서 5·18 40주년 기념음악회 <오월, 부활하다> 개최
- 공연 참여 오케스트라·합창단 518명 모집...2.13.(목)~3.9.(월) 접수
- 연주 영상 심사로 진행, 전 국의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참여 가능
- 5.18 역사적 의미 되새기는 뜻깊은 무대에 오를 실력 있는 연주자 참여 기대

-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은 5.16(토)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5.18 40주년 기념음악회 <오월, 부활하다>를 준비하며, 공연에 참여할 총 518명의 오케스트라 및 합창 단원을 모집한다. 이번 음악회는 '5.18 민주화운동 40주년'을 맞아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재조명해 그 의미와 정신을 전 국민이 공감하고, 나아가 세계에 알리기 위한 기념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.

- <오월, 부활하다>는 5.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담아 동영상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518명의 오월오케스트라와 오월합창단이 무대에 오른다. 동영상 오디션에는 단체 또는 개인 자격으로 오케스트라 활동 등 클래식 악기 연주경험과 합창 활동 경험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, 참여신청서와 지원동기 영상, 오디션 악보 연주영상을 심사하여 단원을 선발한다.

- 참여 신청은 <오월, 부활하다> 홈페이지(<http://518.sejongpac.or.kr>)에서 2.13 ~ 3.9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, 제출한 동영상으로 오디션을 진행함으로써 전 국민에 참여 편의를 제공한다. 공연 참여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홈페이지에서 참가 내용 및 방법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.

- 선발된 단원에게는 소정의 출연지원금을 지급하며, 4~5월 연습을 거쳐 5.16(토) 19:00 서울광장에서의 <오월, 부활하다> 음악회에 연주자로 참여하게 된다.

- '5.18 민주화운동'을 기념하고 그 역사적 의의를 오늘에 되살리는 의미를 담은 <오월, 부활하다>는 구자범 지휘자의 지휘 아래 '말려 교향곡 2번 "부활" 전 악장을 연주하며,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지원 신청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